


창의, 실용, 현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선진일류경제 구현			
<b>보도자료</b>		 <b>기획재정부</b> <small>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</small>	
보도일시	<b>2009. 3. 18(수) 배포시</b>		
배포일시	2009. 3. 18(수) 10:00	담당부서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
담당과장	고 경 모 (2150-4510)	담당자	조현진 사무관(2150-4512)

**제목: 「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」 개최**

- 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.18(수) 9:30 정부과천청사에서 「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」를 개최하여,
- ‘농·어업 부문에 대한 보증확대’ 및 ‘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강화 방안’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- ② 윤증현 장관은 지난 3.13일 G-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‘한국경제설명회’에서 한국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
- 특히, 최근 크레딧스위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위험도를 미국, 영국, 호주 등 선진국보다 낮게 평가하고, 보스턴컨설팅도 한국의 글로벌 혁신수준을 세계 2위로 발표했음을 예로 들며,
  - 경제상황이나 정부대책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, 우리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

- ③ 윤증현 장관은 G-20 회의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,
- 특히 이번 회의에서 ‘금융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’ 논의와 관련하여, 우리의 경험과 시사점을 담은 ‘Korea Proposal’이 재무장관 성명서의 부속서에 반영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
- ④ 마지막으로 윤증현 장관은 최근 발생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비리와 관련하여,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,
- 금번 대규모 추경과 관련하여 재정집행점검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노력할 것임을 언급

기획재정부 대변인